

재스퍼 만년설 가던 관광버스 전복

3명 사망, 24명 부상



재스퍼 국립공원에서 버스 전복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오후 1시경 재스퍼 국립공원의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인근에서 관광객 27명을 태운 특수 설상 버스가 가파른 도로를 오르다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성인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태에 빠졌다. 나머지 10명은 치료 후 안정 상태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버스는 약 33도의 경사 도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다섯 바퀴

가량을 구르다 완전히 뒤집혔다. 현지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충돌 분석가의 지원을 받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상자와 중상자는 헬기 등을 통해 에드먼튼, 그랜드 프레리, 힌튼, 켈거리 등 여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에드먼튼과 켈거리의 일부 병원들은 중상을 입은 환자들 많이 올 것에 대비해 '코드 오렌지' 경계령을

내렸다.

한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는 재스퍼에서 남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빙원 중 하나로, 관광객들은 빙하 전용 버스차량을 통해 빙원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투어를 경험하고 있다.

이 관광사업은 코로나19로 폐쇄된 후 약 한 달 전부터 50% 인원 수용량으로 빙원 투어를 재개한 바 있다.



류현진 토론토 개막전 등판 무산 연방정부

“코로나 사태로 홈구장 사용 불허”



만, 우리 선수들은 캐나다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현진도 MLB닷컴 키건 마테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려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는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캐나다 연고 팀이어서 미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경기해야 하고, 미국 연고 팀들도 토론토를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다. 토론토는 24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홈 개막전은 29일(워싱턴 내셔널스전)로 예정돼 있다. 토론토의 훈련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더니든과 마이너 리그 트리플A 홈구장이 있는 뉴욕주 버펄로를 임시 연고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북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올 시즌이 코로나 사태로 이달 말 뒤늦게 시작되는 가운데 류현진의 토론토 등판이 무산됐다.

미국과 육로 국경을 차단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의무적인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지난 18일 토론토블루제이스팀의 홈경기 개최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마코 멘디치노 연방이민 장관은 “정규시즌 경기를 치르려면 블루제이스 선수와 직원들이 반복해서 국경을 넘어야 하고 상대 팀도

캐나다 국경을 넘나들어야 한다”며 “특히 블루제이스는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경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이어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 우리는 MLB 정규시즌에 필요한 국가 간 이동이 캐나다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크 셔피로 토론토 구단 사장은 성명을 내고 “지역 사회와 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연방 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번 여름, 로저스 센터에서 홈경기를 치를 수 없지

이와관련, 토론토 구단은 “최대한 빨리 대체 홈구장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OVID-19 Relief Package

캘거리 교민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힘을 내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캘거리 한인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구호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본 구호물품은 캘거리 한인장학재단을 필두로 캘거리 한인회, 도움나눔등 여러 한인단체가 합심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캘거리 파운데이션, 재외동포재단, TD은행이 캘거리 한인사회와 그 뜻을 함께합니다. 모든 한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원금으로 인해 제한된 신청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구호물품이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신청서를 준비했사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
이번 구호물품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유족, 노인가정, 직장을 잃어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인분, 또한 양국, 캐나다와 한국의 지원 사각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신청자 분들에게도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해 드리려는 계획이니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하실 정보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메일/성함/전화번호/주소: 본인확인 및 중복방지
2. 연령대: 훗날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가정: 한 지원물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 확인
4. 비자/CERB/고용상태/소득 하락률: 신청자 분의 현재 상황, 지원의 필요여부 등 파악

또한 신청하신 사유나 저희에게 알리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 사유란에 기재 해 주세요.

본 신청서는 혹시 해당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불가능한 분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대리신청 및 추천신청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정 안내>
원활한 스케줄의 진행을 위해 본 신청서는 7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구호물품 신청결과는 선정되신 분들에 한하여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호물품은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픽업 가능하도록 스케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Scan 하세요!



한인회관 주소: 7008 Farrell Rd SE, Calgary, AB T2H 0T2
한인회관 연락처: 403-216-4600

문의,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wnn.recruit@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정당 한 분씩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n45ndqjT8CakzhzbKm2KsKNhcY89b-5oBq-XN4K9Ls/edit?usp=sharing>